

## Part 1: mr-1-sample3.pdf

고요한 도시의 지도 제작자

비가 내리는 법을 잊은 어느 아침, 이리안 보스는 지도가 한 줄도 바꾸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통찰보다는 습관에 따라 그것을 첫 번째로 알아차렸다. 아침 식사 전에 그는 격자 구역의 시 지도책을 펼쳐 자물쇠 수리점 위 자신의 좁은 방 테이블에 놓았다. 잉크와 흑연으로 약간 물든 검지를 따라 거리의 격자를 더듬으며 다른 사람들이 문장에서 멈추듯 교차로에서 멈춰섰다. 그 장소의 고정된 기하학에는 위안이 있었다. 강과 직각으로 만나야 할 다리, 사각형 안에 원을 품어야 할 시장 광장, 고집스럽게 좁아야 할 좁은 길.

하지만 지도는 너무 깨끗했다.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깨끗했다. 도시는 살면서 생기는 혼잡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면허 없이 5년 동안 지속된 가판대, 무너져 판자로 대체된 계단, 한 지역의 예의가 끝나고 다른 지역의 예의가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이리안의 일은 이러한 세계들을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고용주가 "수정"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했지만, 시민들은 "확인"이라고 불렀고, 시적 감성이 덜한 사람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서류 작업"이라고 불렀다.

그 아침,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확인 사항을 발견했다.

참새 길과 운하 건인길 사이에 짧은 거리 하나가 보였다. 정교한 세리프 글자로 "루시어 로우"라고 적혀 있었다. 선은 연필이 아닌 인쇄였다. 그 거리는 강만큼이나 확신에 차게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이리안이 그곳을 수십 번 걸어 다녔지만, 바닥에 이끼 낀 벽과 절대 열리지 않는 쇠문만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도책에는 측량 사무소의 봉인, 양각된 나침반 장미와 출판 연도가 있었다. 2년 전의 일이었다. 이상한 점을 더 악화시켰다. 거리가 새로 생긴 것이라면 그가 들었을 것이고, 오래된 것이라면 그가 걸어보았어야 했다. 새로움과 오래됨 사이에 지도는 제3의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그 거리가 다른 주름 아래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대로였다. 색인을 확인했다. 루시어 로우는 루서 광장과 루츠 부두 사이에 목록되어 있었고, 그 벽과 문이 있는 동일한 빈 공간의 격자 참조와 일치했다.

이리안은 생각을 억지로 떠올리지 않고 서서히 형태를 잡게 하며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지도의 오류는 흔한 일이었다. 지도에서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다.

8시가 되자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아래층의 자물쇠 수리공은 이미 카운터에서 빈 열쇠를 바이스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리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 이리안이 말했다.

## Part 2: mr-2-sample3.pdf

"안녕하세요," 자물쇠공이 대답했다. 잠시 무언가 계산이라도 하는 듯한 침묵 후에, "운하로 가려면 먼 길로 가세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모인 거죠?"

"별일 아네요," 자물쇠공이 대답하며 필요 이상으로 열쇠를 갈았다. '별일'이라는 단어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이리안은 멀리 돌아갔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가 아니었다. 도시에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였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날은 얇고 서늘한 밝음이 깃들어 금속 표면이 새로 주조된 것처럼 보였다. 빗물은 얇게 고여 있었지만, 비가 내리지는 않았다. 공기는 보통 비가 오기 전에는 조용한데, 대신 숨을 죽인 듯했다.

그는 스페로우 레인으로 가는 라티스 구역을 지나며, 배고픔을 조용히 논박하는 듯한 빵을 찌내던 빵집 창문을 지나쳤다. 그는 문지방에서 머리카락을 열심히 쓸고 있는 이발사를 지나쳤다. 코너에서는 낡은 공고들 위에 비뚤게 붙은 전단지가 있는 게시판을 지나쳤다:

시청 조사국

정보 요청

등록되지 않은 길, 골목, 통로, 계단을 목격하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무원에게 보고하세요.

익명 제보 가능.

전단지는 두꺼운 종이에 어두운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찢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스페로우 레인에 도착했을 때, 그 길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과 위층끼리 서로 쏠려 있는 음모처럼 보이는 복도. 끝에는 벽돌 담이 서 있었다. 수년간의 그늘음과 날씨로 얼룩져 마치 시간이 스며든 것 같았다. 철문이 벽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바 안쪽에는 그림자만이 있었다.

그 뒤에 길이 있다는 흔적은 없었다.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신호조차 없었다. 경첩은 보이지 않았고, 자물쇠는 장식 같았다.

이리안은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내 그 장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기 행위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는 마음의 일부를 진정시켰다. 선이 질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그가 벽돌의 질감을 그늘지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길이 아니야."

### Part 3: mr-3-sample3.pdf

연사는 이리안보다 약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상징 없이도 공식 유니폼처럼 보이는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장식 없이 머리를 뒤로 핀으로 고정한 그녀는 하늘이 아직 비 내린 습관을 잊은 무렵에 접힌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리안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렇게 되길 원하듯이 쓰고 있어요.”

“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불쾌한 방식으로 익숙한 것처럼 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측량사군요.”

“초보 도면사예요,” 그는 대답했고, 작은 것에서도 정확성이 중요하기에 덧붙였다. “현장 검증 및 수정 작업입니다.”

그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당신은 도시가 의존하는 사람이며 언젠가는 도시가 탓하는 사람이군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저했다. 이것은 도시에서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신중함, 훈련, 후회. “마라 헤스트예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리는 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일종의 정확한 직업 설명이었다.

이리안은 일어나 문에 다가갔다. 그는 철창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 걸쇠를 시험해보았다. 놀랍게도 기름칠이라도 된 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저항감이 있을 줄 알았다. 대신, 걸쇠는 메커니즘보다는 결정처럼 들리는 조용한 소리와 함께 올라갔다.

마라의 우산이 그녀의 손에서 들어 올려졌다. “안돼요.”

이리안이 멈췄다. “왜 안 되죠?”

“당신이 그것을 검증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이 실재하게 되니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걷는다면 거리는 실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걷고 있는지를 물어야겠죠,” 그녀가 말했다.

## Part 4: mr-4-sample3.pdf

이리안은 다시 문을 주목했다. 걸쇠가 풀려 있었다. 문짝은 회전하지 않았다. 경첩이 없었고 대신 문이 벽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치 잘 만들어진 장식장의 패널처럼 말이다. 그 풍경은 사람 한 명이 서기에도, 두 명이 함께 걷기에도 충분히 넓었다.

그 너머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돌로 포장된 복도가 있었다. 약간의 바람에 바니시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서 흘러나왔다.

"루티어 거리야," 이리안이 부드럽게 말했다.

마라는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어제는 없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리안이 말했다가 문장이 지닌 허술함을 느꼈다. 가능성이란 도시의 속성이 아니었다. 도시는 그 자체의 규칙으로 움직였고 정의가 뒤따라야만 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복도는 짧았고, 급선회하며 좁은 거리로 이어졌다. 양옆으로는 오래된 워크숍들이 늘어서 있었다. 격자구역의 다른 건물들보다 더 오래되고,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 골조가 약간 휘어져 있었다. 입구 위에는 바이올린, 조각된 하프, 끌을 든 손이 그려진 간판들이 걸려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한 작업장의 열려 있는 입구 속에서, 남자가 벤치에 앉아 나무를 천천히, 정확한 스트로크로 대패질하고 있었다.

이리안이 뒤돌아보았다.

그의 뒤의 통로는 스스로 봉인되었다. 문이 있던 곳에는 끊임 없는 벽만이 보였다.

이제 거리에서 마라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마치 그녀가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그녀가 말했다.

"뭔가 보여," 이리안이 답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감각을 안정시키려 했다. 여기는 공기가 더 서늘했다. 빛은 시간이 틀린 것처럼 이상한 각도로 떨어지며, 거리가 태양에 대해 다르게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 밑의 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끄러워져 있었다. 건물의 창문은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져 세상의 배경을 조용히 왜곡했다. 어디선가, 현악기가 단조로운 음을 냈다. 테스트하고, 조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소리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이리안이 말했다.

남자의 손은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 "너는 실례가 되지 않아."

이리안은 기다렸다. 대패의 날이 나무를 따라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 거리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리안이 마침내 말했다. 그 문구가 얼마나 우스운지 알면서 말이다.

## Part 5: mr-5-sample3.pdf

남자는 대패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도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창백하고 불가해했으며,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마치 그의 관심이 늘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거리는 주인이 없어요," 그가 말했다. "이름이 있고, 용도가 있으며, 빛이 있죠."

"측량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마치 그에게 익숙한 무게가 지워진 듯했다. "그럼 당신은 일종의 채권자군요."

이리안은 노트를 펼쳤다. "이 거리는 지도에 나오지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존재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를지 결정하겠죠," 남자가 끼어들었다. "몇 개의 문이 있는지, 몇 개의 손이 담겼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존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겠죠."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리안이 말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권한이 중요한지 궁금해졌다. 관료 사회에서는 연필을 쥔 사람이 망치를 쥔 사람보다 더 강력할 수 있었다.

남자는 일어섰다. 키가 컸고, 앞치마는 수지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떠나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책을 닫고 순응하는 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뒤에 서 있던 마라가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를 데려왔군요."

"그를 따라왔어요," 마라가 말했다. "그 차이죠."

남자는 다시 이리안에게 시선을 돌렸다. "측정해야 한다면, 제대로 측정하세요. 이 거리는 대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리안은 오래된 반응을 느꼈다: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을 때의 만족감. "이곳이 무엇인가요?" 그가 물었다.

"수정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무엇에 대한 수정인가요?"

"당신의 도시요," 남자는 대답하고는 대화를 다른 미완의 작업들 사이에 넣어둔 듯 대패질을 다시 시작했다.

이리안은 더 안쪽으로 걸어갔다. 작업장들은 계속 이어졌고, 각각의 향이 있었다: 아마씨유, 뜨거운 접착제, 윤이 나는 흑단, 금속 부스러기. 거리는 곧았지만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끊임없이 절이 더해지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 Part 6: mr-6-sample3.pdf

계단을 내려가다가 거실 크기만 한 작은 광장을 발견했다. 중앙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분수가 있었다. 대신 얇은 그릇에 고운 열은 모래가 담겨 있었다. 모래 속에는 작은 물건들이 박혀 있었다: 열쇠, 깨진 구슬, 골무, 매끄럽게 닳은 작은 동전.

한 아이가 분수 가장자리에 앉아 동전을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다.

아이는 차분한 호기심으로 이리안을 바라보았다. "우리를 고치러 오셨나요?" 아이가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리안이 말했다.

"당신은 선을 고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가 말했다. "우리 엄마는 당신들이 선을 고치면 도시가 선을 우리보다 더 믿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검증해," 이리안이 말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리진 않았다. "기록해."

아이는 그것이 더 나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이란 허용할 기억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마라는 모래에 시선을 두며 분수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무것도 건들지 마," 그녀가 말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

아이는 따뜻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건드려," 그가 말했다. "설령 안 하려 해도."

이리안은 광장을 지나 멀리 있는 건물을 보았다. 작업장보다 큰 건물, 높다란 창문과 조각한 나무로 둘러싸인 출입구가 있는 홀이었다. 문 위에는 간단한 귀와 나침반 장미 모양의 간판이 있었다.

그는 다가갔다.

홀 안은 어둡고 넓었으며, 천장은 도시의 나머지보다 오래된 듯한 빔으로 지탱되어 있었다. 벽에는 선반이 줄지어 있었다. 책 대신 못이 담긴 병, 편지 묶음, 천 두루마리, 깨진 찻잔, 아이의 나무 장난감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각 물건에는 깔끔한 손글씨가 적힌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다.

중앙에 있는 책상에 나이 든 사람—두꺼운 옷 아래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이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었다. 펜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이리안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펜은 멈추지 않았다. "요청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답했다.

"저는 측량사입니다," 이리안이 말했다. "루티어 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펜이 굵적었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치성을 제공합니다."

## Part 7: mr-7-sample3.pdf

"이해가 안 돼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은 어둡고 얼굴의 주름은 나이가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한 순간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이리안이 다시 물었다. 그 질문은 아직 머물 곳을 찾지 못한 듯했다.

"저장소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도시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묻어두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정리합니다."

"조사국이 한다는 일과 비슷하네요," 이리안이 말했다.

그 사람의 입꼬리가 조금 움직였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웃음 같지 않았다. "조사국은 편리한 것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남은 것을 정리합니다."

마라는 이리안 뒤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 사람의 시선이 그녀로 옮겨갔다. "돌아왔군요,"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마라는 자세가 굳어졌다.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 사람은 말했다. "목적은 말하세요, 마라 헤스트."

"저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마라는 대답했다. "그가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이리안을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은 승인을 수행한 겁니다," 그들은 말했다. "승인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리안은 침을 삼켰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는 개인적인 위안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막았다. "이것은 공공의 체계입니다."

그들은 장부를 닫고 일어섰다. 의자는 바닥과 하나 되어 움직였다.

"저와 함께 걸으세요," 그들은 말하며 동의도 기다리지 않고 선반들 사이의 통로로 걸어갔다.

이리안이 따라가고, 그 뒤를 마라가 따랐다.

통로에 붙은 라벨은 음악이나 도구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계산되지 않은 문들', '이름을 거부한 거리들', '서류상 철거된 건물들', '강압 아래 한 약속들', '일어나지 않은 날씨' 같은 문구들이었다.

이리안은 마지막 라벨에 멈춰 섰다. "'일어나지 않은 날씨'라니," 그가 되뇌었다.